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편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필주: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선문사 '길은 묻는 나에게' 담당자 양 ● 인터넷: www.hann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대령 스님

길을 묻는 나에게

제 796호 현대불교
2010년 8월 11일(음 7월 2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1

아주 중심에다 활을 쏘을 수 있다면 아니 되는 게 없어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전에 이런 얘기 한 예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감기를 앓았는데 너무 오래 앓았어요. 인제 죽을 병이 되어서 의사들도 다 괴질이라나 그러면서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아들이네 그당 하도 병이 안 떨어지고 애를 쓰니까 스님이 오셔서 여쭙 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당신네 나무 패는 모랑 있죠? 도끼하고.”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도끼를 들고 그놈 좀 이리로 내오라고 그러거든요. 허허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소? 아, 그놈 내오라고 그러니. “어서 나오나라. 스님이 나오라고 하신다.” 해서 나오니까 그놈 모기지를 그냥 모랑에다 톱 놓고 “이놈, 감히 어디라고 내가 부처님 앞에 불어서 이러느냐!” 이러면서 그 모랑에다가 목을 올려놓고 그냥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거만히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여기 와서 그걸로 인해서 얻어먹고 살려고 했는데 똑배기가 깨지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똑배기를 들고 일면 도망을 갑니다. 그 아들한테 똑배기를 썬워 놔거든요. 똑배기를 썬워 놔야 병을 앓아서 자기가 얻어먹거든요. 그래 똑배기를 벗겨 가지고 일면 도망을 가니까 그 병이 바로 낫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좀 내버리세요. 네? 죽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원통합니까? ‘내일 죽은들 어쩔고 모래 죽은들 어쩌리! 좀 더 살면 어쩔고 덜 살면 어쩌리!’ 아, 이렇게 좀 하면 어때요? 뭐가 그렇게 그렇다고...? 그렇게 내버리고 산다면 그냥 좋은 법에 좋은 곳에 회복한 기정에, 참스라온 마음에서 이리로 가도 좋고 저리로 가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명실명실 춤을 춰도 다 못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여러분이 “저 중 미쳤어.” 이 말까 봐 춤을 못 추지, 허허허... 아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중 미쳤어.” 그럴 거예요. 춤 좀 추고 줄웃기나 하면 “것 미쳤어.” 그리고, 걸 쥔걸 줄웃으면서 아주 그냥 웃도 다 벗고 이러면 “아주 정말 미쳤군.” 이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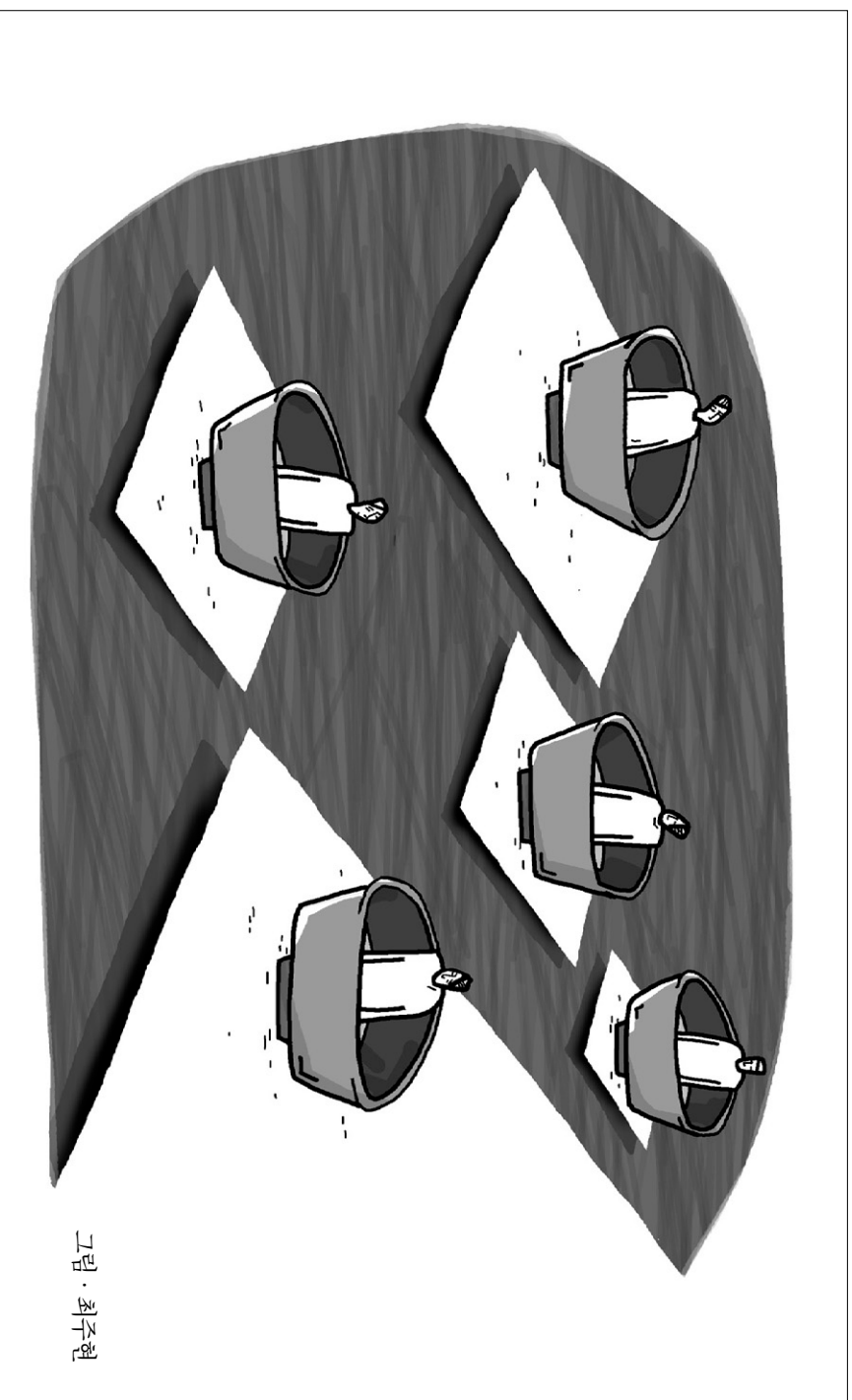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이 공부 하는 데 미쳤다는 소리 한마디 듣지 않고는 공부 못합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진심으로써 자기한테 자기가 미쳐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길잡이한 데는 지혜를 구하고자 따르는 거고 자기를 받건하려면 자기를 믿어야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복으로 고달리고 귀신짓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귀신짓을 하지 않는데 어찌 귀신이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진짜로 아주 중심에다 활을 쏘을 수 있다면 진짜로 아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아니 되는 거 없죠. 여러분, 인제 질문 좀 안 하시겠습니까?

질문자(아): 영가 친도에 대해서요, 저는 법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얘기로는 해마다 초상 친도를 해야 되고, 그런 행사를 각 사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것만에 백중 때에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게 성씨의 일체 초상’ 그리고 그기도를

점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체 초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많은 성씨들이 거기 다 같이 결할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어느 조성이든지 내 초상이 아님이 없다 하는 데 공간 을 가졌습니다.

큰스님: 아유, 참! 도인이 나셨네요, 또.

질문자(아): 죄송합니다.

큰스님: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 하시기가 어렵죠.

질문자(아):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던 사찰 도반에게 “나는 이번에 큰스님한테 초상 친도를 부탁드렸는데 틀림없이 친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런 믿음을 갖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느 비보는 법력이 크신 분은 그 근원을 찾아서 친도를 하시기 때문에, 스님이시라면 완전히 친도를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다음 해부터는 조

상 친도를 안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친도된 영혼이라면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부터는 일체의 우주 무주 고통을 위한 친도의 방법은 탁하했지만 내 조상을 위해서 하기보다, 부모나 형제 친척이 죽기 전에는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길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거는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참! 생각 잘하셨습니다. 틀렸다는 사람은 자기 소견이지 보살의 소견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생각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러니 전부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데도, 부처님이 다 견져 놓으셨는데도, 여러분이 벌써 인연이 맺으니까 99% 부처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 때문에 모두 중생인 것입니다. 아까

보경 스님의 회로애락 세상보기

.....

3

동서고금의 이야기 숲에서 견져낸, 보경 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기쁨 · 분노 · 슬픔 · 즐거움의 지혜!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독산원내법당리운 1131호
T. 02.732.2403-4 F. 02.739.7565
minjoksa@dohol.com www.minjoksa.org

이야기는 반북애 포미가 있다.

이야기